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이영현 사무국장



“광주 동호인 400개팀…열정 펼칠 야구장 많이 생겨야”

“매 경기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실력과 열정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무등기 지역 사회인 야구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개막해 두 달간의 열전에 돌입한 광주일보 주최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이영현(42·△민수환경 부장) 사무국장은 25일 “이번 대회는 사회인 야구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행사다”며 “앞으로 매년 지역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여년 간 장성포비스팀의 포수로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과 부대끼며 함께 운동해온 야구 동호인이다.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연합회 이사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

와 달라”는 요청에 선수 출전의 기회를 포기하고 무등기 대회의 실립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개막식을 비롯해 이날도 새벽부터 경기장을 지키며 4경기의 진행을 도왔다. 경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룰을 설명하는 것부터 스코어 기록까지 이 사무국장의 역할이 많다. 또 처음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겨루는 팀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돋는 것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아직은 때가운 가을 햇볕 아래 벌써 11경기를 소화한 그의 얼굴은 이미 새가맣게 그늘렸다.

이 사무국장은 “힘들기는 하지만 아마추어들의 경기는 프로 경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로 더 많이 연출되는 팀들이 펼치는 명승부를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며 “특히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가족간의 화합을 다지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열악한 경기장 시설은 아쉽기만 하다. 광주에만 12개 리그에 400여팀이 야구를 벗삼아 친목을 다지고 있지만 마을 놓고 경기를 칠 수 있는 경기장이 부족하다. 또 지금의 경기장도 선수들의 쉴 공간과 탈의실은 물론 변변한 화장실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 사무국장은 “생활체육 인구가 늘고 곳곳에 축구 인구를 위한 인조 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야구 동호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청자미디어센터 강현 초청 특강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는 한국대중음악평론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대중음악평론가 강현씨를 초청, ‘오디션 열풍으로 본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특강을 펼친다.

강씨는 난무하는 오디션·서바이벌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의 한국대중음악과 문화현상을 날카롭게 진단할 예정이다. 문의 062-650-032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현모 前 광주교대 총장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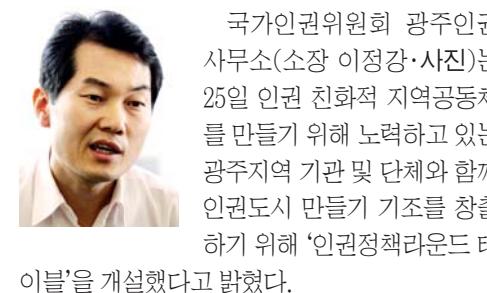


임현모 전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 22일 광주 북구 평생학습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주 평통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임 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최근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무관심과 부정적 견해가 확산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욱 심한 것이 크게 우려 된다”며 “남북한 모두가 안정적으로 선진화되고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절실히, 무엇보다 국민적 통일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 개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사진)는 25일 인권 친화적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지역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인권도시 만들기 기조를 창출하기 위해 ‘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를 비롯한 광주시 인권담당관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 공의인권법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인권정

책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은 광주의 인권관련 정책이 내용적 충실했을 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 테이블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방식을 확인하고 가능한 공동실천 방안을 모색해가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첫 회는 지난 23일 광주 NGO센터에서 ‘국제 인권동향과 인권도시의 흐름’, 그리고 광주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2차 회의는 ‘인권 거버넌스의 실천방안’을, 3차에서는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다룰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 이해강좌 내일 녹색연합 이유진 팀장 초청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구)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국제교류센터(전일빌딩 5층)에서 이유진(녹색연합 녹색에너지 팀장·사진)씨를 초청해 ‘후쿠시마 원전사고·한국 에너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이해강좌를 갖는다.

이씨는 이날 강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를 들며 원전사고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한국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

제1회 ‘명품 수완 어울림축제’ 한미당



제1회 명품 수완 어울림축제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수원리아인스케이트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수원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하경)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래자랑과 예술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남개발공사 한옥호텔 ‘영산재’ 개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3일 영암 삼호읍을 나불리 영암호 국립관광지 내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주얼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회순署 정보보안과, 이주여성 초청 간담회



회순경찰서(서장 윤명성) 정보보안과(과장 서재수)는 지난 23일 관내 거주하는 이주여성 2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 서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한국문화에 조기에 적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조우회(회장 민경채) 월례회=30일(금) 오후 6시 30분 영광골비 011-607-6817.

종친회

▲장흥위씨 광주 종친회(회장 위인백) 3/4분기 모임=27일(화) 오후 6시 30분 화랑궁회관(예술의 거리 입구) 011-602-9727.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29일(목) 오후 11시 30분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故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 별세



1970~1990년대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의 바이블’로 통했던 ‘성문영어’ 시리즈의 저자인 송성문(80·본명 송석문)씨가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에 별세했다.

송씨가 1967년 처음 펴낸 성문종합영어(당시 정통종합영어)는 지금까지 40여년 간 판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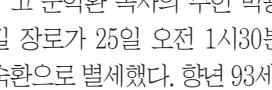
문법과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1976년 성문출판사가 출판하면서 제호가 ‘정통’에서 ‘성문’으로 바뀌었다.

평복 정무 출신으로 신의주교원대를 나온 송씨는 6·25 전쟁 때 통역장교로 근무하면서 영어 접두고시 중등·고등과정에 합격했다. 부산 동아대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했다.

고인은 일선에서 물러난 뒤 개인적으로 수집한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 도장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오화순씨와 장남 철(성문출판사 대표), 차남 현(미국 거주), 딸 미선씨가 있다. /연합뉴스

故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로 별세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25일 오전 1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박 장로는 황해도 수안군 출신으로 경기여고

와 일본 요코하마여자신학교를 졸업한 뒤 1944년 문 목사와 결혼했으며 이후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다.

통일맞이·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화협·통

일연대 상임고문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명예 대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2005년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도장장을 받았다.

유족은 딸 문영금씨와 아들 이근(JP모건 시카고 부사장)·성근(배우)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28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이다. 02-2072-2010. /연합뉴스

광주 동구의회 조종진 부의장

시·군·구 의장·협·지방의정 봉사상



조종진(사진)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23일 광주 라마다프리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58차 대표회의에 서 지방 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조 부의장은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새로운 의원상·정립,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과 주민 복리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등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조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 모집 062-351-1206.

▲축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는 40~50대 회원 011-646-357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부동

▲이수진씨 별세 정준영(서준실 대표이사)·태성(전 광주MBC 사장)씨 모친상=별인 26일(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 02-2227-7587.

謹 故人의 夢福을 빙니다弔

故 정동영 님(남/94세)

子/子婦 : 정덕수 / 황 남, 인수 / 남궁현일
女/婿 : 정정숙 / 김경희, 세림 / 노동희,

영미 / 신용필, 영희 / 정성기
• 호실201호
• 혼인일: 2010-09-26
• 장지: 화순청평면

故 추정임 님(여/80세)

子/子婦 : 김정호 / 임수정
女/婿 : 김정호 / 정숙, 인숙, 문길주
• 혼인일: 2008-09-28
• 혼인장: 영락공원

故 강경재 님(남/49세)

子 : 강성민, 성주
女 : 이주정
未亡人 : 김경례
• 혼인일: 2002-09-26
• 혼인장: 영락공원

故 김원관